“투자유치하면서 기존 투자기업은 소홀”

어제 ‘제주 상장기업 유치·육성 전략 과제’ 심포지엄
이율배반 도정 행태·양적 팽창 경계 목소리도 비등

“제주에서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투자한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유치는 없다.”

20일 오후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제주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한상 제주스타기업협회장은 이날 “기업을 육성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해선 기술과 그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주는 기술을 뒷받칠 만한 인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주도 기업의 가장 눈높이에 맞는 것은 코스닥시장이 아니고 코넥스”라며 “현재 국내 코넥스 스타트업 기업들의 90%가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제주도 기업도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CEO를 했던 박종명 제주양조장대표는 행정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그는 “2012년부터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투자유치를 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뤄졌는데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17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좌초됐다”면서 “작년까지 28개 투자유치사업 가운데 성공한 투자는 3개 정도, 나머지는 소송 등으로 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현재 호텔만 운영중에 있다. 이 사업은 5년간 3단계 사업인데 7년간 1단계만 하고 종료됐다. 투자유치를 해서 투자자가 왔는데 정착하는 과정까지 너무 어려웠다. 행정에서 계속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제일 좋은 투자유치는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며 “투자한 기업을 성공시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투자유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입지실 전문연구원은 상장 기업 20개 육성·유치 목표와 관련해 “제주도의 지역 경제나 지역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 또는 지역 산업의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20개 기업이라는 정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주도의 산업 여건이라든지 향후의 미래 방향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의 구조나 구성, 또 신성장 동력 산업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그에 맞는 기업군은 뭐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스마트 축산 농장 확대 추진
제주시, 내년 10개 농가 계획

제주시는 내년에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축산 농장 10개소를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스마트 축산 농장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다. 양돈, 낙농, 한우, 양계 등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축사 시설 현대화와 연계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사육 환경을 개선해 냄새를 줄이고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에 구축된 스마트 축산 농장은 총 29개소다. 올해는 6개소에 30억2700만원을 투자해 해당 농가에 로봇 착유 시스템, 환경 관리기, 자동 급이 시스템을 갖췄다. 내년에는 10개소 구축을 목표로 36억66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시 관계자는 “악취 저감 컨설팅 제공과 함께 스마트 축산장비 설치 확대로 축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 주거복지센터 방문한 도지사 오영훈 지사가 20일 제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주거복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희만기자

도, 사려니숲길~물영아리 입구 병목구간 개선

남조로 구간에서 발생했던 차량 병목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조로 구간 중 병목현상으로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왔던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물영아리 입구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남조로 구간은 1일 최대 1만1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제주 동부권 남북을 잇는 주요 노선이다.

이번에 개선한 구간은 그동안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병목현상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개선 요구가 잇따랐던 구간이다.

제주도는 남조로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이태윤기자

■ 제주화장품원료산업화센터 준공 (상) 추진 배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거점기지 역할

총 면적 2087㎡에 2층 규모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갖춰
원료~완제품 원스톱 지원
“제주지역 청정자원 활용해 화장품 틈새시장 공략 계획”

지난달 14일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부지에 화장품원료센터가 개소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화장품 원료생산에서 완제품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화장품원료산업화센터 설립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14일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부지에 화장품 원료센터를 개소했다. >> 사진

화장품원료센터는 총면적 2087㎡(632여평)·2층 규모로 화장품 원료 시험생산·연구개발·물류창고 등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제주 천연자원에서 원료소재를 발굴해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거점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화장품원료센터를 구축한 것은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의 산업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의 세계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화장품원료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파고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공모사업으로 2018년 화장품 원료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이래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센터 신축과 연구장비 도입 등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센터는 소량의 제품과 원료를 소재화, 규격화가 가능한 장비뿐 아니라 대량 생산을 위한 2t 규모의 액상추출 장비, 향료 및 오일추출 장비, 각종 특수 추출 장비, 건조시스템을 갖춰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제품 제조공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봉석 제주TP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산업 팀장은 “제주의 우수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심과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등 해외 OEM 업체에서 제주산 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견학을 오는 등 원료산업의 파급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바이오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자생하는 장점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를 기술집약 산업으로 성장시킬 경우 그 잠재력은 충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원료 시제품 개발, 연구 장비구축, 공정기술개발 등 집적화된 기업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제주기업들이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기획으로 작성 됐습니다.